

홍콩, 국제 환경오염방지기기전을 보고

曹振泰 / 新和環境(株) 환경사업부 과장

영국 거래선의 전시회 참가 초청을 받고도 방문 결정을 못 내리고 미루던중, 지난달 24일에 발생했던 영일만 유조선 침몰사고 소식을 듣고 환경사업에 종사하는 필자로서는 현재의 국내 각 기관과 관련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지기자재의 부족과 정책 및 체제의 미확립에 아연함을 느끼며 홍콩항만 시찰을 겸해 전시회를 관람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3월 1일의 전시회 개최식에 참가하기 위해 2월 29일 KAL 617편으로 홍콩에 도착하여 호텔에서 여장을 풀었다. 3월 1일 아침 10시에 있었던 개막식행사는 전시회 주최측의 간단한 개막인사와 참가 회사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었다. 국내 전시회에서 늘상 보아왔던 오색테이프 절단이나 통로를 가득채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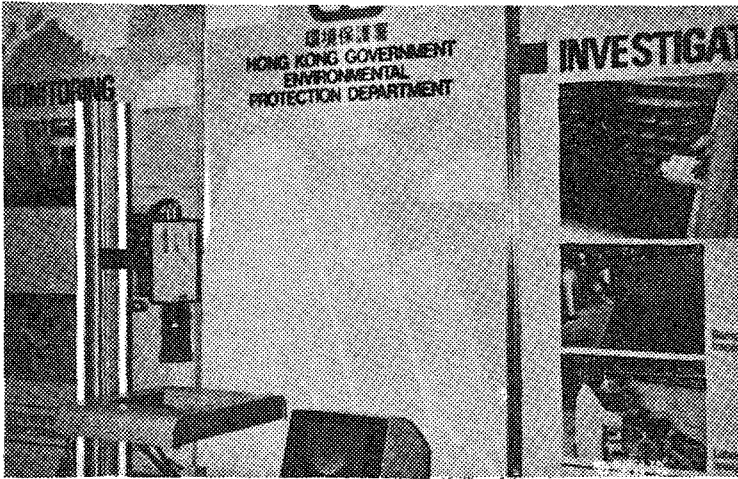
화려한 화환덩어리 대신에 중국 고유의 용춤이 선보이고 각 참가 회사부스를 쿵후가 걸들인 용춤을 추며 방문하여 전시회의 성공을 비는 의식으로 진행되었다.

규모면에서는 14개국 68개

「홍콩」전시회는 규모면에서 그다지 크지는 않았지만 정부 관계부처등이 직접 나와 「환경보전」계몽을 하는것이 이채로웠다.

회사가 참가하여 수처리 및 관련기자재가 출품되어 있어 국내의 전시회처럼 수질, 대기, 소음, 진동등이 혼합 전시되는것과는 달리 전문성을 띠도록 배

려한 한 점이 특이했고 전시장의 배열이 고루 관람할 수 있도록 흐름을 만든점 또한 인상적이었다고 특이한점은 홍콩정부의 수도국과 홍콩 환경보호처의 담당 공무원들이 나와 홍콩시의 수질관계 및 홍콩보호업무에 대한 자료제공(물론 유상이었지만)과 홍보활동을 하는점이였다. 우리 전시회에서는 볼 수 없는 면이었으므로 여러가지 질문을 하면서 필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해양오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자 홍콩내 항만시설과 오염제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담당 공무원 자신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등을 적어 주는 친절함도 보여주어 전시회에 참가하여 기념촬영만 하고 돌아서는 우리와는 다른 일면을 보여주는 대민 봉사자세의 유연함과 자연스런 화합의



홍콩환경보호청이 전시장안에 부스를 개설해 냈다

유대를 엿볼 수 있다. 전시된 품목들은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제품들은 거의 망라되어 있어 국내 수입업자들이 기왕 외국전시회를 관람하는김에 하루종일 전시회장을 돌며 품목마다 우리의 실정과 비교하여 많은 기술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몇가지 좋은 상품을 발견할 수 있었음은 여비를들여 출장은 보람을 가질 수 있었다. 관심이 있던 품목은 현재 국내산업시설의 폐수처리장에서 널리 쓰이는 새로운 유흡착재 드리지프를 영국의 DARCY PRODUCTS사에서 출품하였고, 산업체 폐수처리조에서 기름제거를 위한 약품OIL BREAK가 독일에서 출품되어 있어, 관심을 보이자 이미 국내의 코오롱상사와 대리점 계약이 되어있다고 하였다. 하천 및 호수의 부영양화 현상을 막기 위한 에어레이션 설비도 출품되어 관심을 가질만 했다. 각종 수처리시설의 계측기 또한 여러형태가 있어 잘만 적용하면 오염의 측정과 예방에 도움이 될만 하였다.

안내서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출품업자를 찾아보니,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않은 NAPPCO INTER CO, 라는 회사에서 수처리에 관계되는 각종 밸브와 플렌저, 커플링등을 출품하여놓고 한국인 사장이 직원 한명과 메이드인 코리아를 소개하고있었다.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국내에서는 인식부재로 아직 판매실적이 많지 않으나 세계적으로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시장이 좁고 판매량이 적다는 이유로 참여를 기피하는 환경사업에, 많은 비용을 들여 외국에서 열리는 전시회까지 출품하는 중소기업체의 모습이 새롭게 느껴지며 이러한 기업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환경 문제는 날로 개선되어 지리라고 생각해 보았다.

전시회 관람을 마치고 3월 2일 홍콩항만의 해양오염 방지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항만 곳곳을 방문하여 보았다. 홍콩항만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부유물들

이 수면에 표류하고 있었으나 콘베어벨트를 이용한 소형 작업선이 운항하며 계속하여 부유물을 수거하고 있었다. 또한 항만내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기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오일웬스를 설치하여놓은 모습과 기름수거를 위한 각종 오일스키머와 기자재를 비치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3일에는 기왕 홍콩을 방문한김에 마카오 관광점 항만오염방지시설도 관람하기 위해 홍콩 마카오간을 운행하는 공기부양식 쾌속선을 타고 마카오로 향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항만을 방문할수가 없었다.

짧은 기간 동안의 수박결핍기식 관람이었지만 전시회에서 수집한 각종 카다로그와 자료사진들을 가방 가득히 넣고 대한항공에 몸을 실으면서도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는것은 영일만의 기름오염사고가 어떻게 확대되어 가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환경오염 방지 및 방제 업무는 현대를 살아가는우리가 당연한 최대의 난제이며 인류에 의해 오염된 이 자연을 조물주가 주신대로 지켜 나가자면 우리는 끝도없고 소리도 없는 전쟁에 어쩔수 없이 참가한 숙명적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병사들인 것이다.

“
나를위해 자손위해
우리 모두 환경보전

”